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저와 함께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 길,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벌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실
길은요. 학종의 비밀무기라고 할 수 있는 독서편입니다.

독서 누구나 다 아시죠?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읽을 목적이 재미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지식을 좀 더 탄탄하게 해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에 따라서 목적이 다르기는 한데

이 독서가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독서라고 하는 거는요. 학생부 내에서만 보면
독서 항목이 따로 있죠. 그런데 그 독서 항목에서는

책명이랑 저자명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독서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그 란을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양적으로도 약간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일단 기록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책도
굉장히 경중이 있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활동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도 집중을 해야 되는 공간이 있듯이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독서활동란에 적을 독서와 그리고 교과세특에
적힐 독서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힐 도서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복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고르셔야지

독서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는 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든 활동의 연결점이다라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서는요. 아주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지원자의 관심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읽은 책을 보면,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지, 지적 호기심
분야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남이 시켜서

읽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읽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정말로 잘 드러나는 분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독서를 하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력도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보통 독서는

활동 하나라기보다는 활동과 활동을 이어주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 글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독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과시간에 이루어지는, 교과란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잖아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자체가 중학교 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깊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융합이고 통합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거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을

원하는 친구라면 관련 분야의 책을 읽어야겠죠. 그런데
이 책을 혼자 읽기보다는 같은 진로, 같은 관심사가

있는 친구끼리 같이 읽으면요. 굉장히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면

보고서 활동도 하게 되고, 당연히 보고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교과 시간에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심화되면 좀 더 어려운 책을 읽어서 이에
대한 탐구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내용을

교과 시간에 발표하게 되면 교과세특에 적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하나의

활동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
역할을 독서라고 하는 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교과를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내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독서도

하나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어준 이 거미줄 같은 녀석이 바로 뭡니까?

독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독서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활동과 활동을

연결해주는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분야에 적힐 수가

있겠죠. 교과세특에 가능하고요. 동아리활동에도
가능하고, 자율활동 가능하고, 교내대회 같은 경우는

수상 많잖아요. 독서상 이런 것 다독상도 있고,
진로활동도 가능하고, 봉사활동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적히지 않으니까 빼더라도 이런 분야에 모두 다 적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라고 묻는 친구가
있는데요. 다독과 정독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융합의
시대잖아요. 이공계 가는 학생들도요. 인문계 관련

책을 읽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인문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요. 과학 관련 서적 읽어야 되고,

관련 활동 해야 돼요. 디자인 관련 서적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게

독서죠.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책을요. 가볍게 읽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2학년, 3학년에 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전공을 선택하는 일종의 전공 탐색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적합합니다.

1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다독이라고 하는 독서가
굉장히 적합해요. 그런데 다독이죠. 읽다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다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완독할 필요는 없어요. 완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재 자체는 독서 기록 시스템에 올려놓으면 무조건

기재가 되잖아요. 뽑아서 가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완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챕터 발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읽기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스테이지기 때문에 살짝
가벼운 거 위주로 읽으셔도 돼요. 물론 어려운 거

읽으셔도 되지만 문제는 이 다독, 특히 1학년 때 읽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면 우리가 보통 독서를 할 때

성장하는 독서를 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성장하는 독서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부터 첫 단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2학년 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책을 읽어요. 굉장히 뭔가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예 1학년 때는요. 다독으로 가되 대신에
좀 어려운 책, 어려운 전공책 위주보다는 약간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벼운 책 위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물론 그중에 어려운 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와 반면에 정독.
정독은 뭡니까? 굉장히 하나하나 천천히 끝까지 읽는

완독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읽기인데요. 당연히 뭐로
가야 됩니까? 자기가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

전공과 관련된 분야, 자기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진로
분야와 관련된 책은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독은 어디의 결과물이 될까요? 1학년 때
많이 읽었던 다독의 결과물로 제시돼야 돼요.

많은 분야, 많은 책들을 읽어요. 그러면 이 많이 읽게
된 책 중에서 관심 분야가 생기겠죠. 그것과 관련된

정말로 좋은 책을 골라서요. 완독도 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 책이 나에게 있어서 인생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수험서 공부하듯이 밑줄도 쳐봐야 되고요. 메모도
해놔야 되고요. 책상에 항상 꽂혀 있는 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인생책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책은 어떨까요?
다독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시면 돼요.

빨리 읽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정독을 할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특히 인생책이라고 할 만한

책은요.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밑줄치고 메모해야 되는 거니까.

빌린 책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책상에
꽂혀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독을 해야 될 만한

책들은요.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는 거로 그쳐서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책을요. 삼으셔야 돼요. 당연히 이런 인생책은요.
독서항목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독서항목은요.

책명이랑 저자명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인생책이라고
할 만큼 정말 정독을 한 책인데, 정말 책 제목과

저자명만 들어가는 공간에 써주시고 싶으세요? 아까운데.
웬만하면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세특에 기록되는 게 좋겠죠. 교과세특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과보고서보다는

발표활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자기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라든가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후속 활동까지 같이 연결해서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교과세특에 자세하게 적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율활동 시간. HR 시간이나

무슨 교육시간이라 하면, 연관된 책이라 하면 발표해도
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당연히 적힐 수 있겠죠.

단순하게 활동만 있는 진로활동보다는 이렇게 독서의
내용도 들어가 주면 뭔가 다채로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관 독서로 이어져야겠죠. 한 권만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인생책이라면 여기서 파생된 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자기가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파생이 되죠.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른 책에 파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독한 책은요. 당연히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요. 밑줄도 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독서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정독을 할 만한

책들은 전공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관심
분야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낫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책은요. 어떻게
가보자? 인생책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래서 이런

인생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까지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평가관들이

독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독서활동란보다는 다른
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활동에 기재했다는
내용은 독서항목에 들어 있는 책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시관들도요. 약간 가치가 떨어져

있는 책 모음인 독서항목란보다는 교과세특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 있는 독서에 대한 내용을요.

질문을 할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면 정말로 세세할 정도로, 물론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책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관련된 교과 지식과의 연계된

어떤 암기 정도는요.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히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선택은 가장 쉬운 거는요.

교과서 단원과 연계하면 좋아요. 아까 저번에
통합사회라든가 통합과학, 과학실험 목록

보여드렸잖아요. 목록과 관련된 주제를 찾습니다.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 키워드를 온라인 서점 있죠?

도서관 있죠? 넣으세요. 넣으면 관련된 책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터넷 서점 미리보기 있죠?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읽어보고 나서 어, 이 책은 괜찮은 거 같아.

빌려보거나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힘들면
추천도서 목록 있죠? 대학이 추천하는 100권짜리,

뭐 서울대학이 추천하는 100권짜리, 국어교사가
추천하는 100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셔도

돼요. 물론 그런 걸 쓸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교될 가능성은 많죠.

이게 추천도서의 최대 단점인데 추천도서의 장점은 책을

고르기가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증이 된 책이기

때문에, 단점은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추천도서 목록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은 책과 다른 친구들이

읽은 책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라면 면접의
질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즉, 어려운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어 비문학 있죠?
국어 비문학 문제 풀다가 어,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아.

굉장히 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책의 원본을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책을요. 찾아보면 돼요. 책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굳이 안 사도 되죠. 학교도서관에도 굉장히

책이 많고요.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굉장히 많잖아요.
책이 정말로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을

이용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책 정도는요.

좀 용돈을 모으거나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막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에 머리말이 놓여 있죠. 이 머리말
한번 요약해보는 겁니다. 머리말 보통 많게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부분에는요. 그런데
이게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저자가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가 적게는 2장에서 많게는 10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연계된, 뒤에 나오게 될

내용을 보통 예고편처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 책이 재미있나, 재미없나를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내가 찾던 책인가를
머리말 요약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다음에는 그 머리말 요약한 다음에 목차 있죠?
목차에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찾으면 돼요.

만약에 두꺼운 책이라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발췌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논문, 논문은 요즘 소논문을 안 쓰니까 많이
안 쓸 텐데, 논문 초록을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논문 초록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굉장히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탐구활동 할 때 논문을 찾아보는

활동을 많이 할 건데요. 논문 전체 내용보다는 초록만
참고해도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초록만 봐도요.

충분히 그런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초록 찾는
거랑 도서목록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초록의

역할을 머리말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어보지 말고요. 머리말을 한번 요약해보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독서를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시간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말 요약하기

굉장히 좋은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읽은 후에도 문제죠.
보통 많은 친구들은 읽고 딱 끝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읽고 끝냅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끝내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모든 활동은 후속 활동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 독서의
기록은 단순하게 독서 시스템에 기록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개별화를 해야 됩니다. 뭘 하는 게
좋아요? 책에 대한 서평을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책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게 돼요. 독서감상문
단순하게 쓰죠. 독서감상문도 쓰면서 서평을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상적인 구절이라든가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짧게 느낀 점을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 내용이 독서감상문 한
페이지 쓰잖아요. 그런데 서평 정도 쓰면 한 페이지까지

안 걸려요.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 정독을 해야 될 책을 고를 때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만약에 이 도서가 브릿지 역할을 했으면

왜 내가 이 활동 다음에 이 책을 읽게 됐는지가 이것만
보면 나옵니다. 이런 활동을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책을 읽게 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알게 됐는지를 써주시면

굉장히 후속 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책을 읽은 내용, 여기에다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사, 시사적인 이슈까지 같이 옆에다
코멘트를 써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아주 작은

탐구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잘 엮으면
수업시간에 발표할 수가 있겠죠. 융합이잖아요.

책의 내용과 세상의 이슈, 책의 내용과 나의 경험, 책의
내용과 세상의 이슈와 나의 경험이 이렇게 결합이 된

융합적인 독서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발표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선에서 끝나거든요. 그나마 이거, 여기까지 연결시킨
애들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연결시키면 굉장히 독서기록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져요.
당연히 독서 관련된 발표의 퀄리티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면
이 정도가 있는 학생부랑 여기까지 있는 학생부랑

뭘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까지
있는 학생부를 선호하시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책을요. 보통 많은 친구들은 혼자 읽어요.
대부분 혼자 읽습니다. 뭐 혼자 읽는 거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자 읽을 때 최대의 문제점은 아까랑
똑같아요. 책을 읽고 끝납니다. 확장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도요. 다른 활동처럼
협업이 돼야 돼요. 어떻게? 팀독서 하는 거죠.

같은 책을 딱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요약할 부분 요약해 오고, 서로 발표할

내용 발표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어떤 특정
사항이라든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썼던 토론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괜찮죠.
아, 얘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얘가 이런 활동과 이런 활동을 연결시켰구나.
아, 얘가 자기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구나.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의 독서 실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돼요. 혼자서 읽게 되면요.

물론 자기의 배경지식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너지 효과가
적어요. 하지만 같이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굳이 자율동아리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소모임 같은 거 하면
되죠. 학급특색사업으로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학급끼리 모여서 일찍 끝나는 날 같이
모여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소모임을요.

규칙적으로 가지면 돼요. 아니면 아예 자율동아리로
독서모임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란에는 적히겠지만 동아리활동이니까 좀 약하고,

독서소모임이 오히려 어느 게 편할까요? 학생부에

기재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자율활동에, 그렇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 쪽보다는
학급소모임으로 가주는 게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활동이 적히는 분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율동아리보다는 소모임 쪽으로
구성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거 같아요.

독서활동입니다.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데는 교과세특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세특이야말로 학생부에서 정말로 코어,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것들은
교과세특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자잖아요. 500자니까 어떤 교과에 넣을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력이 될 교과에 넣을 거냐,

그런데 주력이 될 교과가 될 경우에는 다른 활동도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3순위, 4순위 교과에

넣어주는 전략도 짤 필요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교과세특이 꽉 차 있으면, 활동이 꽉 차 있으면 자율,

자율이 보통 쓰잘데기 없는 게 많으니까 자율활동,
아니면 활동으로 꽉 차 있는 진로활동에 독서활동을

넣어 주는 것도 뭔가 다채로운 활동을 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성장하는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학년별로 책을 읽는 수준
자체가 그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학년 때는 너무 수준 높은
책을 읽고 정독 위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빠르게 읽는 다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독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정하면

그와 관련된 책을 다시 읽든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책을 구해서 정독하고 완독해서

자신만의 인생책을 구하는 이런 성장하는 독서를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정독의 책이라든가 인생책은요.

2학년과 3학년란에 적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려운 책을 먼저 읽기보다는

쉬운 책을 먼저 읽고, 여기서 파생되거나 여기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책을 선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소위
뽀대라고 하죠.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고르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전략입니다. 오히려 수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생책을 만들자.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정말로 두세 번 읽을 수 있을

만큼 정독할 수 있는 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학년에
최소한 한 권 정도는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2권이 좋아요. 학기당 한 권씩 해서. 보통 그리고
학기당 3권 정도는 읽어주는 게 좋아요, 최소.

원래는 한 달에 한 권 정도가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독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권 읽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주말을 이용하게 되면 충분히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특히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이 좀 더 선호하는 대학 쪽이라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읽은 책 중에서

학기당 한 권 정도는 정말로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책 정도, 이런 책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밀줄 쳐가면서

관련 자료 찾아가면서 정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독서활동이 나올 거 같아요. 이 외에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독서하기 전과 독서한 후의 활동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독서 전에는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사전조사 해보시고요. 머리말 읽기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책을 다독으로

갈 건지, 어떤 책을 정독으로 갈 건지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읽고 난 후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서평을 써보라고 했어요. 서평을 쓰되 제일 좋은 방법은
동일한 책을 같이 읽고 서로 쓴 서평을 나눌 수 있는

팀독서 이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독서활동을 만들 수 있는 Tip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파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굉장히 중요해요. 학종에서
독서라고 하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이긴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되는 양적인 측면도
채우셔야 되고요. 인생책을 만들 만큼 전공 관련된

책을요. 한 학기에 한 권 정도 만들 수 있는 퀄리티
높은 독서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요.
학생부 전반에 걸쳐서 기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독서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절로 나옵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떤
책이 좋고, 어떤 책이 나의 인생책이 될지는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소설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책과 비문학책의 비율을 여러분들이
1:1 내지는 비문학 쪽이 좀 많게 읽는 게

좀 더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데 있어, 탐구활동을
돋보이게 하는 데 있어 조금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8강 학종의
비밀무기, 막강한 무기입니다. 독서편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로 멋진 학생부를 만들 때 독서라고 하는 녀석을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
2가지 강만 남았습니다. 2가지 강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에게 많이 질문했던 것들, 학교에서
질문하거나 학교에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

제가 강연 갔을 때 질문받았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Q&A를 갖는 시간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요.
1강부터 8강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게시판에 꼭 그와 관련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강 학종의
비밀무기 독서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